

김성 군수 “노벨문학도시 장흥 K-문학 대표도시 도약”

시정연설서 새로운 군정 비전·운영 방향 제시 문화·예술·관광 경쟁력 강화...군민 행복 대전환

김성 장흥군수가 2025년을 도약의 해로 삼아 노벨문학도시로서 K-문학 대표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일 장흥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장흥군의회 시정연설에서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새로운 군정비전·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관광의 융성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흥군은 전국 최초 문화관광기행특구로 다수의 현역 등단작가와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문학적 뿌리를 자랑한다.

이를 기반으로 군은 2025년 1월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공식 선포하고 ▲이정준, 한승원 등 문인 생가 복원 ▲부녀문학 산책로 정비 ▲해안도로 노벨문학산책로 조성 ▲천관산 노벨문학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족제의 글로벌화, 도요시장 시즌2 활성화, 옛 장흥고도소와 해동사의 관광자원화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흥형 농어업 정책’도 마련된다. 읍·면별 전략작물 단지화를 통해 6차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인증 비율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농업 지원을 확대한다. 임업은 장흥표고 신제품 보급과 유통기반 확충을, 수산업은 무산김 국제 유기인증 확대와 장흥 팔딱낙지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축산업에서는 장흥한우 명품화를 이어간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한다. 탐진강 문흥빛의 거리 조성, 우드랜드 야간경관 개선 등 기존 사업을 이어가며, 프리즌 빌리지 조성, 탄소제로 귀촌마을 구축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청년 전입과 정착을 위해 출생기본수당 지급,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정책을 펼친다. 김 군수는 군민 행복 대전환을 위한 따뜻한 복지정책도 강조했다. 전체 군민의 약 13%인 취약계층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한 나눔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복지를 확대하고 ‘Let’s Go 안전장흥’을 목표로 군민은 물론 장흥을 찾는 방문객들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성 군수는 “장흥군만의 독자적인 비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며 “노벨문학도시 장흥, 안전장흥, 통일시장의 땅 장흥의 비전을 군민과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김성 장흥군수가 최근 장흥군의회 시정연설에서 2025년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관광의 융성을 이루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세계로 뻗어가는 여수” 중장기 도시 발전 추진 과제 발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전 선언식 복지사회 구축·관광산업 육성 등

여수시가 중장기 지속가능 도시 발전전략을 담은 ‘지속가능발전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여수’ 비전을 발표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정기명 시장과 여수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전 선언식을 개최했다.

지속위는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를 받고 5년 단위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소외받지 않는 복지사회 구축 ▲저탄소산업 전환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경제 달성 ▲국제적 해양생태계 관리 강화로 세계적인 미항도시로 도약 등 17개 지표에 따른 5년 단위 세



여수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비전 2045’를 선언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부 추진 계획 12개 과제를. 회의가 끝난 후시는비전 선언식을 개최해 지속위 위원과 부서 담당자와 함께 2045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천상국 공동위원장은 “9개월간 위원

들과 용역사, 공무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시 정부에서 추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얻은 빈틈없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통해 앞으로 다가오는 여수의 미래 20년을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인류 최초 김 양식지 ‘광양김시식지’ 조명

김역사관·유물전시관·문화관광해설사 등 콘텐츠 다채

광양김시식지가 인류 최초 김 양식 발원지로 제조되며 K-푸드 김 수출 1조원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김시식지는 김 양식법을 최초로 창안한 김여익의 업적을 기리고 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김여익은 병자호란 당시 의병으로 활약하다 광양 태인도에 은둔하던 중 해초가 나무에 걸리는 모습을 관찰하고 1643년 섯잎이 방식의 양식법을 개발, 김 양식을 보급했다. 이는 바다를 경작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획기적 발상이었다.

인조가 수라상에 오른 김에 감탄하며 김여익의 성을 따 ‘김’이라 부르도록 했다는 일화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 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광양김시식지는 김 역사관과 유물전

시관을 비롯해 김의 유래와 제조 과정 등 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풍부한 설명으로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에는 김여익 후손들이 김의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며 인호사에서 제사를 올리고, 300년 역사의 용지 큰줄다리를 재현한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김 대량생산의 상징적 출발점이 된 광양김시식지는 김 수출 1조원 시대를 연 발원지로, 김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며 창의력을 자극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많은 이들이 이곳을 방문해 김 양식의 위대한 유산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김시식지는 설과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며, 깊이 있는 문화관광해설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광양=양홍렬기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광양에서 김양식법을 창안한 김여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광양김시식지 K-푸드 김수출 1조원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광양김시식지 내 영도재, 인호사. (광양시 제공)

이병노 담양군수, 국회서 ‘고향사랑기부 전국 1위’ 사례 발표

전담팀·다양한 답례품 등 주요...민간 플랫폼 도입 정책방향 논의도

담양군은 “최근 이병노 담양군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 지난해 전국 1위를 달성했던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대표 발의한 이계호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병노 군수가 직접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 군수는 발 빠르게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체 기부자의 92%를 차지했던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를 겨냥한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는 등 제도 취지를 정확히 파악한 철저한 준비가 전국 1위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새로 도입된 지정기부제 운영 방향과 이와 관련된 기금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답례품 산업의 변화와 민간 플랫폼 도입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운영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노 담양군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 지난해 전국 1위를 달성했던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이병노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초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완하며,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구례군, 지역발전위 연석회의의성로 오산 케이블카 등 현안 정책 토론

구례군은 “최근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군·읍면 위원회 위원, 군의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리더십 관련 특강과 군정 현안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료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설치된 민·관 협치 조직으로 주로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들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김광호 콤비마케팅 연구원장의 강연, 2부에서는 문척 양수발전소와 오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서시교 철거, 산동 골짜기 조성, 아이쿱 제3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석우 위원장은 “지역소멸과 예산 감소 등 지역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역할을 집중하고 군정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지 등 최근 성과는 위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민·관이 지역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때 구례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며 지역발전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구례=임종길기자

“전남체전 성화 봉송 아이디어 찾아요”

郡, 13일까지 장성군민·공직자 대상 공모전...41건 선정

장성군은 1일 “오는 13일까지 2025년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 기업을 위한 ‘성화 봉송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응모는 장성군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성군 전남체전 담당자에게 우편,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장성군 특색 반영 ▲기존 성화 봉송과 차별화된 독창성 ▲아이디어 주목성 및 과급효

과 ▲아이디어 완성도 및 구체성 등이 다. 장성군은 총 41건을 선정해 최우수상 1건 50만원, 우수상 5건 각 30만원, 장려상 15건 각 10만원, 노력상 20건 각 5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장성군 전남체전 담당팀 (061-390-8828)에 문의하면 된다. /장성=김문태기자